

<인형의 숲>

등장인물

성미주 (여, 21세) 대학생

백현민 (남, 21세) 대학생

유주현 (여, 21세) 대학생

그 외 학생들 엑스트라

<시놉시스>

공포 체험을 가게 된 미주와 현민, 주현 3명은 어두운 산을 방문하게 되고, 그 산을 둘러보며 공포 체험을 하던 중, 한 인형을 발견하게 된다. 한쪽 눈이 가려진 인형을 접하고, 현민이 그 인형에 접촉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과연 어떤 현상이 그들을 조어오는 것일까?

검은화면 위로 수업 소리가 들린다. 수업이 끝났는지, 다들 의자 빼는 소리가 들린다. 서서히 화면이 밝아진다.

1 학교 복도, 낮

교실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현민과 주현.
그리고 문에서 미주가 나온다

미주: 오래 기다렸지?

현민: 어 오래 기다렸어

주현: 빨리 가자 나 배고파

미주: 아 알겠어 같이 가 !!!

복도를 걷는 3명

미주: 애들아 우리 공포체험 안할래???

주현: 갑자기 웬 공포체험?

미주: 그냥 방금 수업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길래...

현민: 근데 언제??

미주: 글썄 말 나온김에 오늘 갈까??

주현: 난 괜춘~

건다가 멈추는 현민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돌려 거절할려 한다.

뒤를 돌아보며 말하는 주현과 미주

현민: 나 근데 오늘은 뒤에 일정..

주현: 재 저거 구라임 아까 나보고 피시방 가자고 했어

미주: 어휴 쫄았냐~? 무서우면 안가도 돼~~ 현민아~~

주현: 그래그래~~ 안가도 된단다~~

조롱하는 주현과 미주를 지나치며 말하는 현민

현민: 아 알겠으니까 싸물어! 이따 봐 그럼

미주: 야! 손전등 너가 들고와라!

주현: 그럼 나도 간다? 이따 봐

미주: 응~

페이드 아웃

#2 산 아래, 저녁

페이드 인

미주와 주현이 가로등 아래에서 서있다.

주현: 이 새끼 언제와?? 제대로 시간이랑 말했지?

미주: 말했는뎡? 쫄아서 튕거 아니야? 전화해볼게

그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쪽을 쳐다보는 미주와 주현

그리고 현민이 도착한다.

현민: 미안 이거 후레시 좀 찾느라고.. 헉.. 헉..

주현: 야야.. 손전등 챙겨 오랬지 누가 이런 큰거 가져오랬나

미주: 뭐 어때~ 굳이 그 큰거 챙겨오시겠다고 10분이나 늦으셨잖아~~~ 벌써 9시 10분이
나 됐는걸~

현민: 아 가져왔으면 됐잖아 빨리 가자

앞장서는 현민과 그 뒤를 웃으며 쫓아가는 주현과 미주

#3 산, 밤

산길을 걷기 시작한 주현 미주 현민

이때 주현이 말을 꺼낸다.

주현: 분위기 넘치긴 하네..

미주: 애들아 그거 알아?? 옛날에 여기서 눈없이 죽은.. 아 깜짝아!

갑자기 멈추며 후레시를 꺼버린 현민

미주: 왜 불을꺼!!!!

현민: 이걸 놀라네 쫄보 새끼 ㅋㅋㅋ

주현: 뭘 이런걸로 소리를 질러... 귀신 같은게 어딴냐...

미주: 알겠으니깐 얼른 다시켜 !

현민: 알겠어 다시 켜다... 켜.....

그때 옆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 미주 현민 주현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에 온몸을 집중한다.

미주: 방금 뭘소리야 ,,?

주현: 그냥 바람 때문이겠지... 이럴거면 왜오자 했니...

현민: 아니.. 저거 뭔데..?

현민이 후레시를 비춘 자리에는 인형이 하나 놓여있었다. 인형은 눈 한쪽에 거즈가 붙어있었다.

미주: 뭐야.. 뭔데,..? 가지고 와보자

현민: 난 싫어 니가 가

주현: 이런 애들이랑 뭘 하겠다고..

그렇게 주현이 가려던 그때....

주현의 팔을 잡고 현민에게 말한다.

미주: 야 손전등 있는 니가 가야지!

주현: 그건 맞네

현민: 간다 가 에휴 .. (작은 목소리로) 하 씨바...

현민은 조심스레 인형에게 다가가 주변을 한번 살핀 다음, 인형을 집어 돌아온다.

모두가 현민이 들고 있는 인형에 집중한다. 이때 주현은 인형에게서 무언가 꺼름칙한 느낌을 받고,

주변을 살펴본 다음,

친구들에게 말하려던 찰나, 현민이 인형의 눈 위에 있는 거즈를 때보려 하자, 주현은 현민의 팔을 잡고 말린다.

미주: 생각보다 더 깨끗한데?? 가져도 되겠는데?

현민: 그래? 너 가질래?

미주: 아니.. 너나 가져

현민: 풀었냐? 아무도 안 가지면 내가 가진다? 근데 이걸 왜 붙인 거..

주현: 야 빨리 두고와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야..

현민: 이야.. 유주현도 풀었냐..? 됐거든..

이때 현민이 눈쪽에 거즈를 떼자, 후레시가 꺼진다.

현민: 어.. 뭐야..? 배터리도 새로 켜는데..?

미주: 야 장난치지마! 다시 켜 얼른!

현민: 이번엔 나 아니라고!

그리고 이때 다시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패닉이 온 듯 당황하는 미주 주현이 겨우 진정시킨다.

미주: 애들이 그냥 내려가자! 어차피 더 가지도 못해! 얼른 !!

주현: 미주! 진정해! 그냥 아까처럼 바람 때문일거야

현민은 후레시를 만지기 위해 인형을 팔과 몸사이에 끼고(이때 주현과 미주 시점에서는 인형의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후레시를 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현민은 떼었던 거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고, 주현은 그 거즈를 줍는다 이때 소리도 잦아든다.

현민: 휴 ...잠깐 배터리 빠졌었나 보네...

미주: 야 놀라게 좀 하지마!

현민: 니 개웃기더라? ㅋㅋ 겁나 당황해서는 다시 출발하자

주현: 뭐야 이걸?

이때 앞을 가리키고 내리는 현민의 손엔 인형이 들려있다.

계속 걷는 3명 지친 기색이 보인다. 특히 현민은 땀 때문인지 눈을 자꾸 만진다.

이때 미주에게 얼마나 걸리는 코스인지 물어보는 주현

주현: 미주야 이거 얼마나 걸리는 길이야?

미주: 천천히 걸어도 10분쯤 넘으면 아파트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멈춰서 휴대폰을 켜보는 주현 그 모습을 보고 현민과 미주도 발걸음을 멈춘다,

주현: 우리가 아까... 어,,? 폰이 안켜져!

미주: 충전 안해왔어..? 어? 나도 안켜지네? 백현민! 너는 켜져?

현민: 뭐? 나도 안켜져 !

미주: 분명 난 아까 배터리 충전했는데,,?

그리고 미주의 눈엔 현민의 팔에 끼워져 있는 인형이 눈에 띄인다.

미주: 그 인형 때문 아니야? 그거 가져온 이후로 이러는 거 같애!!

주현:..근데 그게 말이 되나..? 뭔가 꺼림칙 하긴한데..

미주: 맞다니까..! 그거 아니고는 말이 안되잖아!! 얼른 버려 !

현민: 알겠다 알겠어..

결국 옆쪽으로 인형을 던지는 현민

현민: 이제 됐냐..

뒤를 돌아보자 미주와 주현은 보이지 않고 다시 앞을 보자 인형이 앉아 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보며 친구들을 찾는 현민

현민: 뭐야..? 야 성미주 !! 유주현!!!

현민: 뭐야 ...

옆을 한번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인형이 바로 앞에 있었다. 당황한 현민은 후레쉬를 떨구고 그대로 반대로 도망가게 된다.

그런 현민을 부르는 미주와 주현

미주: 야!!

주현: 어디가!! 백현민!!!

이때 현민이 떨구고 간 후레쉬를 줍는 주현

후레쉬를 주은 주현은 후레쉬를 켜보지만,
후레쉬는 고장이 났는지 켜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주현: 가자 우리도..

미주: 불도 없는데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거 맞아???

주현: 그냥 따라와!! 여기 계속 서서 있게??

현민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현과 미주

주현: 야! 백현민!

미주: 이제 안놀릴게 얼른 와! 장난 그만 치고..!

주현: 아.. 이 새끼 어디까지 간거야...

이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

먼저 미주가 뒤를 돌아본다.

미주: 아 이 새끼 뒤에서 오네.. 야....

그대로 얼어버린 미주.

같이 가던 미주가 멈추자 주현도 뒤를 돌아본다.

그때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거대한 인형 형태가 보인다.

가만히 얼어있는 미주에게 주현이 말한다.

주현: 내가 신호 주면 뛰어..

미주:...뭐..?

주현: 닥치고 그냥 뛰라면 뛰어!

미주: 알겠어...

주현: 하나...둘.... 셋!

가던 방향으로 달려가는 미주와 주현 이때 주현이 뛰다가 아까 주웠던 거즈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뛴다.

#2 산 아래, 밤

뛰다 보니 처음 모였던 장소로 나오게 된 미주와 주현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숨을 헐떡이는 미주와 주현..

주현: 뒤에 아무것도 없다.. 헉헉

미주: 백현민은? 헉헉...

주현: 몰라... 헉 아까 먼저 뛰어갔으니까 먼저 갔겠지..

미주: 그래도...

주현: 가자 그냥 빨리! 여기 별로 안 있고 싶어 이제..

먼저가는 주현과 뒤를 한번 돌아보고 따라가는 미주

미주: 같이가...

멀리 걸어가는 두사람을 보여주고 페이드 아웃.

#3 산, 밤

페이드 인

달리는 현민 지쳐 주저 앉는다. 이때 지쳐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들리는건 현민의 숨소리 뿐이다.

안심하고 옆을 보자 처음 인형을 가져갔던 장소였다. 그러자 원래 인형이 있던 장소에 거즈가 떼어진 인형이 앉아 있었다.

현민: 뭐야.. 씨발...

그리고 뒤에서 위화감을 느낀 현민은 뒤를 돌아보고, 뒤에는 인형체가 서있다. 그리고 화면은 블랙된다.

쓰러져 있는 현민 눈엔 피가 흐르고 있고.. 미동이 없다..

그때 현민의 옆에는, 두 눈이 멀쩡히 달려져 있는 인형이 앉아있다.

블랙 되며 영화는 끝이 난다.